

# 우리 말과 글 다스리기 60년

## 지령 200호 맞은 한글학회 「한글」誌의 발자취

한글학회가 발행하는 「한글」誌가 88년 여름치로 통권 200호를 맞았다. 1927년 동인지로 출발, 1932년 학회지로 재출범한 「한글」은 국내에서 가장 연륜이 오랜 학회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걸어온 발자취가 곧 우리 한글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200호라는 나이가 지니는 의의는 자못 크다. 더구나 올해는 한글학회가 선 지 80돌이 되는 해여서, 이번 「한글날」을 맞는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한다.

### 同人誌로 출발해 學會誌로 변신

한글학회의 전신은 1921년에 발족한 '조선어연구회'이고, 이 연구회는 그보다 앞서 1908년에 창립된 '국어연구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어연구학회는 1911년에 '배달 말글 문음'(朝鮮言文會)으로, 1913년에는 '한글모'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21년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조선어연구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된 국어연구를 위한 학회로서 周時經(1876~1914)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한 15,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어연구회는 1926년 음력 9월29일을 '훈민정음 반포일'로 삼기로 하고, 이날을 '가갸날'이라 이름하여 기념식을 가지니 이것이 오늘의 '한글날'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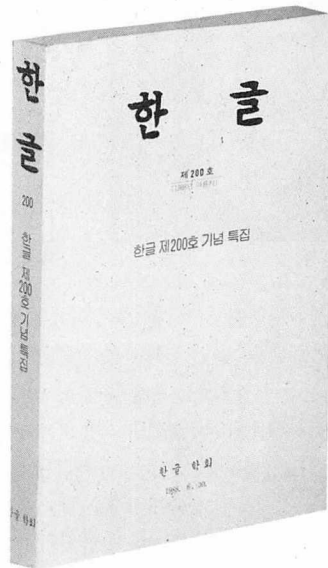
「한글」지는 1927년 2월 조선어연구회 회원들의 同人誌로 창간됐다. 첫호는 4×6판 세로짜기로, 제2호부터는 4×6배판으로 발행되었는데, 재정형편으로 다음해 10월까지 9호를 내고 휴간됐다. 여기에는 權憲奎·申明均·李秉岐·李常春·鄭烈模·崔鉉培 등에 의해 모두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글」지는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칭되고, 다음해 5월에 정식 학회지로 다시 발간되면서 본격적인 語文연구·보급誌(월간)로 자리잡게 된다.

4×6배판 가로짜기 40쪽으로 발행된 학회지 「한글」의 초창기 편집실무는 李允宰(1888~1943)가 도맡았는데, 그는 창간호 권두에 실린 「한글을 처음 내면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글을 잘 알자 하는 소리가 근년에 와서 더욱 높아간다. 우리는 하루바삐 목정말같이 거칠은 우리 한글을 잘 다스리어

**1927년 조선어연구회의 동인지로 출발한 「한글」은 1931년 조선어학회의 학회지로 재출범한 이래, 일제의 탄압과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말·글을 갈고 다듬고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발표된 1천여편의 무게있는 논문들은 우리 국어운동사와 국어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겨놓고 있다.**



울고 바르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년 전에 몇분 뜻 같은 이들끼리 '한글' 잡지를 내기 비롯하여 일년 남이나 하여오다가, 온갖 것이 다 침체되는 우리의 일인지라 이것마저 이어갈 힘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쉬게 된 것은 크게 유감되는 바이다. 우리는 이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본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여 이 「한글」잡지를 내게 된다. 이로써 우리 한글의 정리와 통일이 완성하는 지경에 이를 것을 믿는다.”

그가 말한 '시대의 요구'란 곧 조선어학회가 추진하는 맞춤법의 통일, 표준말의 査定,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을 뜻한다. 당시는 아직 맞춤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한글」지에 표기될 맞춤법은 학회의 결의에 따라 편집을 맡은 李允宰 책임하에 교정되었는데, 다만 “학술에 관한 각인의 주장하는 부분은 그대로 쓰기로”했다.

### 맞춤법·표준말 계몽 보급에 주력

「한글」은 시대에 따라 성격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 초창기에는 다소 전문적인 국어학 관련 논문—특히 맞춤법 이론에 관한 글들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종합 계몽·교양지의 성격을 띠었다. 예컨대 제3호(1932. 7)는 '철자 특집'으로 꾸며졌는데, 「철자법의 합리화」(신명균), 「철자법 원리」(김선기), 「조선문 표기법의 변천」(김윤경), 「새 받침에 관한 계문제의 해결과 그 실례의 총람」(최현

배), 「변격활용의 예」(이운재), 「사이사 소리의 예와 이제」(김윤경) 등의 글과 함께 「동서 각국의 문자운동」(이희승·이극로 외)을 실고 있다.

한편 맞춤법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朴勝彬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어학연구회측이 조선어학회와 상반되는 이론과 규정을 내세우자, 「한글」지는 「박승빈씨의 소위 경음이란 역사상, 성음상 아무 근거가 없다」(신명균·제8호), 「박승빈님의 주장은 과연 종래 관용에 가까운 평이한 것인가?」(최현배·제9호) 등을 통해 치열한 이론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확정 공포되자 「한글」은 제10호(1934. 1)에 특집을 마련,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의 경과 기략」(이운재)과 함께 그 全文을 수록했다. 이후 제11호부터는 “누구라도 한글을 자유로 학습하며 실제로 응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힘써서 일반대중의 요구에 응하고자” 편집내용을 '통속지'(대중교양지)로 바꾸고, 맞춤법을 선전·계몽·보급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1936년 「사정한 표준말 모음」이 이룩되자 제47호(1937. 7)에 「표준어 특집」을 마련, 「표준말과 시골말」(최현배), 「표준어와 문학」(박영희), 「표준어와 사전」(이극로), 「표준어와 교육」(송주성), 「표준어 이야기」(이희승) 등을 다루었고, 그후에도 「한글맞춤법 통일안 강의」(이희승) 「한글 바로잡아 쓰기 익힘」 등을 기획물로 연재하는 등 한글 보급운동에 힘을 쏟았다. 이밖에도 방언 채집

난을 두어 전국 각 지방의 '시골말'과 '조선말 지명'을 수집, 연재했는데, 이는 뒷날 「큰사전」 편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발행 중단

「한글」은 호를 거듭하면서 편집내용만이 아니라 잡지체제도 변화를 겪었다. 앞서 11호부터 '통속지'로 바뀌면서 종전의 30~40쪽 분량이 15~16쪽으로 줄고, 값도 15전씩 하던 것을 5전으로 낮추었다. 이것은 “누구나 사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은 간행비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10호까지는 그런대로 독자가 후원 있었지만, 그후 32호(1936. 3)까지는 편집책임자 李允宰가 호주머니 돈을 털어 출판비용을 냈다.

이 무렵 「한글」 편집에 종사했던 이석린은 뒷날,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잡지 3호'라는 말이 있었다. 종교단체 같은 데서 결손을 보아가며 내는 월간 출판물이나 광고비를 따로 요하지 않는 신문사에서 경영하는 잡지는 그대로 겨우 목숨을 지탱하였고,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단종계 돈을 얻어서 경영하는 몇 안되는 종합잡지 외에는 그야말로 '잡지 3호'이다. 창간호를 내었으나 인쇄비가 안건하여 2호·3호를 내다가 할 수 없이 문을 닫치게 된 것이 일제시대에 우리말로 된 출판물이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더구나 대중 종합잡지가 아니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지각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알아주는 「한글」잡지를 계속하여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한글잡지의 걸어온 자취」·122호·1957. 10)

「한글」지를 지탱하기 위한 교육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발행부수 2,000부 중에서 각지의 도서관이나 교육계·언론계와 유지에게는 무료배부했고, 고정구독자와 시중판매 부수는 겨우 800부 정도였다. 따라서 필자에게 원고로는 일절 주지 않았다. 게다가 1940년대 초에는 면수를 종전의 절반으로 줄이고 판형도 4×6배판에서 국판으로, 다시 국판에서 4×6배판으로 축소했는가 하면, 종전의 월간이 격월간이 되었다가 1942년에는 겨우 두번을 내는데 그쳤다.

# 일반부 최우수작에 손재중씨

## 출협 공모 '독후감' 입상자 발표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이 티지면서 「한글」은 통권 93호를 끝으로 중단되고, 초창기에 편집을 주도했던 이윤재는 다음해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하는 비운을 겪는다.

### 무게있는 논문 1천편...국어학 발전에 공헌

「한글」이 복간된 것은 광복 후인 1946년 4월. 제94호는 옥사한 이윤재를 추모하는 글들로 엮여졌다. 복간된 「한글」은 해방전의 편집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1950년 제109호를 내고는 6·25동란으로 또 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55년 4월 다시 속간됐다.

그후 우리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든 1960년대부터는 편집체제에 있어서도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전문적인 국어학 연구논문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특히 143호(1969. 5)는 가람 李秉岐·한결 金允經의 기념호로, 그리고 146호(1970. 9)는 외솔 崔鉉培의 기념호로 꾸며졌는데, 이는 「한글」이 학술지다운 체제를 갖춘 이래 최초의 기념논문집이다. 특히 외솔 최현배는 1948년 조선어학회 이사장으로 취임, 다음해 9월 학회 이름을 '한글학회'로 고치고, 1970년 타계하기까지 23년간 학회를 이끌면서 국어운동에 크게 공헌했다. 현재의 許雄이사장은 71년 4월 이래 한글학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한편 「한글」은 55년 속간 후에는 형편에 따라 월간·격월간·계간·반년간·연1회간 등으로 대중없이 발행되다가 62년부터는 1년에 2번 정도씩 나왔고, 제163호(79. 3) 이후에는 계간(연4회간)으로 정착, 국어학 전문잡지로 자리를 굳히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글」은 통권 200호에 이르기까지 줄잡아 2천 수백편의 글들을 발표해 왔는데, 그중 무게있는 국어학(언어학) 논문만도 1,000여 편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어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겨놓고 있다. 200호 기념특집호에 실린 지금까지의 총목차는 「한글」지가 우리 국어운동과 국어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얼마만큼 공헌해왔는가를 응변으로 말해준다. —이승우 주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모한 제26회 '독후감상문' 최우수작으로 대학·일반부에 손재중씨(광주), 고등학교부에 허국래양(서울 숙명여고 1년), 중학교부에 김우정군(서울 언주중 3년), 국민학교부에 이한범군(서울 선곡국교 4년)이 각각 뽑혔다.

지난 7월15일~9월5일에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총 31,419편이 응모했는데, 그중 국민학교30명, 중학교24명, 고등학교19명, 대학·일반 13명 도합 86명이 입상했다. 입상자에게는 각부문 최우수작에 문교부장관상(일반부는 문공부장관상)과 9만원~20만원 상당의 책이, 우수작 및 가작에는 출협회장상과 최저 7천원에서 최고 10만원 상당의 책이 각각 주어진다.

이번 응모작의 심사는 유종호(이화여대 교수)·김병익(문학평론가)·조대현(아동문학가)씨가 맡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책의 날' 기념식과 함께 베풀어진다.

각 부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부 = ▲최우수작 이한범(서울 선곡국교 4년) ▲우수작 전동진(장안국교 5년)·박진우(안복국교 6년)·성창호(시흥국교 5년)·조정연(충북 청원 남성국교 4년) ▲가작 고진희(장안국교 4년)외 24명

◇중학교부 = ▲최우수작 김우정(서울 언주중 3년) ▲우수작 김수형(경기도 부평서여중 1년)·정윤희(대구 성화여중 2년)·김정림(부산 대연여중 1년) ▲가작 김두령(성화여중 1년)외 19명

◇고등학교부 = ▲최우수작 허국래(서울

숙명여고 1년) ▲우수작 유은주(숙명여고 1년)·서채중(서울 동덕여고 1년)·박소만(대구 원화여고 1년) ▲가작 현경미(원화여고 1년)외 14명

◇대학·일반부 = ▲최우수작 손재중(광주시 서구 봉선동 A3지구 라인광장 Apt. 102/302호) ▲우수작 이종백(대구시 남구 대명9동 753-16)·김하늘(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289-14) ▲가작 윤삼현(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외 9명

이밖에 단체상은 총2천편을 응모한 대구 성화여중에, 독서지도교사상은 서울 선곡국교·연주중학교·숙명여고와 대구 성화여중 독서지도교사에게 각각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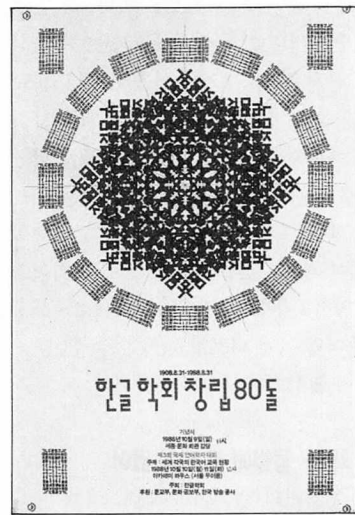
### '모범장서가'에 오영식씨

한편 88년도 '모범장서가'로는 吳榮植씨(35·서울 보성고교 국어교사), '모범 독서운동가'로는 洪淳泰씨(서울 성일국교 교사), '우수 새마을문고'로는 충남 부여군 주안면 '내일리문고'(회장 이혜혁)와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명천문고'(회장 이성현)가 각각 선정됐다.

모범장서가 오영식씨는 대학시절부터 책수집에 관심을 기울여 현재 교양서적 1,300여권, 전공서적 860권, 논문집 650권 등 도합 3천여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전통민속놀이에도 조예가 깊어 각종 행사 때마다 '탈춤'과 '고싸움' 지도를 맡고 했다.

모범독서운동가 홍순대씨는 여러 국민학교에 옮겨다닐 때마다 '어머니 독서교실' '자모독서교실' '어린이독서병원' 등을 조직, 운

영해 왔다. 87년 11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독서지도 방법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이때 강의에 참가한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엄마의 방 독서회'를 조직,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 국제언어학자대회 열어

10월10일~11일 한글학회 80돌 기념

한글학회(이사장 허웅)는 창립 80돌을 기념해, '세계 각국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주제로 하는 제3회 국제언어학자대회를 오는 10월~11월 이틀 동안 아카데미 하우스(우이동)에서 개최한다.

한글학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제한국어교육협회(가칭)'를 결성할 계획이다. 각국의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10일(월) = ▲미국: 김영기(워싱턴대학 언어학과 교수) ▲영국: 스킨드(런던대 극동학과 교수) ▲스웨덴: 조승복(스톡홀름대 동양학연구소장) ▲프랑스: 프로스트(파리제7대학 동양학부 교수) ▲한국: 이현복(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11일(화) = ▲일본: 간노(동경외국어대 조선어학과 교수) ▲독일: 자세(보름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캐나다: 백웅진(토론토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폴란드: 후스차(바르샤바대 동아시아 언어학과 교수) ▲한국: 백봉자(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수) ▲종합토론: 이현복(사회), 변광수, 김성대, 박창해, 김해성, 김영송, 홍연수, 남기심, 오가택 최.

## 제21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10월15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공보부는 좋은 책의 출판을 장려하고 널리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해마다 선정하는 '추천도서'의 올해(제21회) 대상도서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10월15일까지.

이번 추천도서는 87년 9월1일~88년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발행된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추천된 도서는 한국출판공고의 양서보급지원금 2억4천만원을 들여 1종당

200여만원 어치씩 구입, 배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문공부 출판1과(720-4905), 중앙도서관(736-1653), 대한출판문화협회(735-2701~3) 등. 결과는 11월 15일자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공고된다.